

투데이 칼럼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현재 수십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인간의 최소한 권리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철저히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인권 유린은 수용소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일기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6년간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국제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사살하기도 하고 반종사상 문화배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해서 권고한 바 있다.

탈북민들을 더 이상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북한 인권을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이동까지 제한되면서 인권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북한 외부성은 즉각 반박 탄화를 냈다.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연례행사처럼 가



정복규
논설위원

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2011년 당시 북한 국경 경비와 관련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했다. 탈북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사살 조치한 것이다.

실제 압록강 주변에서 탈북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 인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는 탈북민들 모습에 국제사회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게 자유의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

북한에서 일상화한 아동 인권 침해 문제도 인권 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의 어느 북한식당에 파견된

북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접대와 서빙 등의 업무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야 했다.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북한 여성 자수공들의 외화벌이 현장도 마찬가지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고된 노동이다. 그러나 변변한 숙수도 없이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2017년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다.

급기야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 북한은 반종사상 문화배격법을 전격 채택했다. 반종사상 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주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담고 있다.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화를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을 공식 압박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사무소까지 철수하면서 북한 내부 소식은 끊어지다시피 했다. 탈북민의 수도 급감했다. 2019년도까지는 해마다 1천명 대에 이르던 탈북민 수가 지난해에는 63명에 그쳤다.

유엔은 북한이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대북 지원마저 중단돼 취약계층의 경우 기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유엔의 인권 보고서를 날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탈북 후 재입북한 어느 주민을 대외 선전 매체에 출연시키며 사실과 다른 선전 선동을 벌이기도 했다.

탈북민과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설

서거석 펀드 출시 의미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서거석 펀드'를 출시했다. 최소 1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한 서거석 펀드의 목표액은 총 10억원이다. 모두 1·2·3차에 걸쳐 투자를 받는다.

펀드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적용해 오는 8월 2일께 상환할 계획이다.

펀드(fund)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 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용함에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이다.

펀드에 관련된 금융기관을 보

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사),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운용 지시를 실행하고 자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서거석 펀드 투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 후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는 약정서 등의와 함께 내용 입력 후 계좌로 투자 금액 송금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서거석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는 약정서 등의와 함께 내용 입력 후 계좌로 투자 금액 송금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서거석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전주 선미촌 정원의 숲

전주의 대표적 흥등(紅燈街)인 선미촌이 문화예술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정원의 숲'도 조성된다.

선미촌 시타기단은 '기억의 공간'으로 불린다. 최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초록정원사·시민정원사·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봄맞이 꽃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곳은 팔배나무·복수국·털수염풀·휴게라·가우라 등이 식재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억의 공간'은 성매매 조사자들의 아픈 과거를 알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일부만 남겨 둔 상태로 조성된 정원이다.

선미촌 정원 숲은 가린대로·권삼득로·불양벌 2길 일부 구간·인권의 공간(시타기든)·기억의 공간(시타기든)·뜻밖의 미술관 일원 골목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행정의 힘으로 강제로 폐쇄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안착한 만큼, 선미촌 곳곳에 가로 정원과 골목 정원 등의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과거 어둡고 그늘졌던 골목이 사람들이 모이고 주민이 연대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선미촌은 시민들에게 닫혀있던 공간이었다. 오랫동안 기억에서 잊힌 선미촌이 서노출 예술촌으로 변화해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원 조성과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기 바란다.

'선미촌'은 2002년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5년부터 문화재생 사업을 전개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재생사업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보행자 보호 관련 도교법 개정 시행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보행자의 개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현행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의 보행자 개념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 기구장치, 안전기준 有)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의 전 부분을 우선권을 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다. 7.12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으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

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의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이다.

아울러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던 것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함을 명시해야 한다.

신일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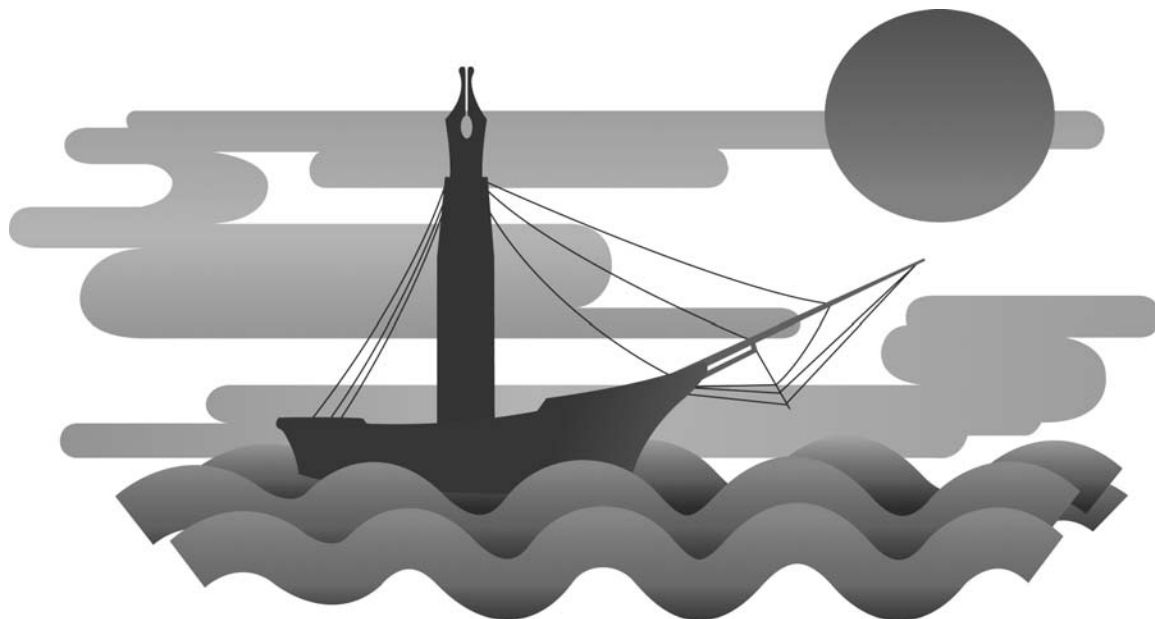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 새해맞이 비후 축제, 민속춤 추는 소녀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아삼주 북동부 가우hati에서 새해맞이 '퉁가리 비후' 축제가 열려 전통 복장을 한 소녀들이 민속춤을 추고 있다. 이 축제는 아삼주의 달력에 따른 새해의 시작과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열린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